

인천시 산업평화대상 수상 기업의 다른 얼굴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지난 2015년 경기도 이천에서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인천의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스태츠칩팩코리아를 앞세워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인천시 산업평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고교졸업생과 실습생 등 청년 노동자가 88%에 이르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2020년, 19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입사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강제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끝에, 1년 만에 간이 다 녹아내리는 산업재해를 당한 청년 노동자가 있습니다.

진실 탐사 그룹 설록의 보도로 지난 9월 처음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산업재해를 부인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표에 일주일 1번, 하루 4잔이라고 표시한 음주 습관 문진표를 근거로 음주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이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독성 간질환이 생겼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으나, 백신을 맞기 이전부터 재해자의 몸에는 이상 증상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이런 적반하장 태도에 맞서 지난 12월 11일 인천 스태츠칩팩코리아 정문 앞에서 건강한노동세상과 반올림 등이 함께 스태츠칩팩코리아 ‘독성 간 질환’ 산업재해 은폐, 진실 보도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반도체 노동자의 권리

반도체 제조 공정은 수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합니다. 재해자가 근무한 공정에서 사용한 솔더 페이스트, 플럭스 등은 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납, 구리, 주석, 은 등과 해로운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고온 작업에 의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 유발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정실은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유기용제 냄새로 코를 찌르는 듯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세척 기계가 있었으나 생산 속도에 맞춰 사용할 수가 없어서 손으로 직접 닦아야 했습니다. 역한 냄새와 독한 화학물질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고작 얇은 덴탈 마스크와 얇은 비닐장갑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매번 찢어져 사실상 맨손으로 세척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자동화된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집약적입니다. 수많은 공정과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작업조건이 요구되며, 이는 노동자들에게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물리적 피로를 초래합니다. 매주 생산하는 제품이 수시로 바뀌어 작업 내용과 취급하는 화학물질도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에서 기억나는 것은 “친환경 제품이니 직접 닿거나 마시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얘기뿐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물론이고, 작업 방식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을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작업조건에서 그 화학물질을 다루고, 일을 하고 있느냐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를 넘어서 노동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사업장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국소 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가동하고 있는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공정 과정을 통해 화학반응을 일으켜 또 다른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교대제 근무,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신체리듬의 변화와 직무 스트레스 등 일터의 노동조건, 환경 등을 종합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노동자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굴 위한 반도체 특별법인가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업무 중 연구개발 등에 대해서 노동시간 제한 규제를 풀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휴게와 휴일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스태츠칩팩 코리아의 노동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은 물론 기본적인 업무 습득을 위한 교육도 제대로 받



▲ 12월 11일 영종도 스태츠칩팩코리아 정문 앞에서 산재 은폐하는 스태츠칩팩코리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건강한노동세상

을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생산량에 쫓겨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그 자체로도 해롭지만, 반도체 산업에서 유해화학물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 오래 노출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반도체 산업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은 국가가 자본과 공범이 되어 산업재해라는 범죄에 가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뒤늦게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은 그대로 두겠다고 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는 없이 일방적인 재정지원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입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R&D 지원사업’,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 조세 감면 등 온갖 특혜는 베풀면서 정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안전보건 목표인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하대, 인천대 등과 같은 인천 지역 거점대학, 인천반도체고등학교 등과의 산학협력을 맺고 있지만, 관심 있는 것은 인천의 청년 노동자가 일하게 될 곳의 노동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홍보할 수 있는 취업률과 매출액과 같은 것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번 사례로부터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열악하고 유해·위험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나아가 고도와 침단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이면에 고통받는 현장실습생 청소년 노동자,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12월 11일 기자회견 발언문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